

# 강진의 가을, 스포츠 열기로 달아 오른다

3일간 64개팀 3000여명 참여 중등축구리그 왕중왕전  
배구·마라톤·태권도...10·11월 전국규모 대회 줄이어

강진지역이 가을을 맞아 스포츠 열기로 가득하다.

9일 강진군에 따르면 스포츠 메카인 강진에서 이달부터 11월까지 전국 규모 주요 스포츠 대회가 열리고 있다.

첫 스타트는 지난 1일 열린 전국 중등축구리그 왕중왕전이었다. 전국에서 64개팀 3000여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가해 실력을 겨뤘다. 특히 3일동안의 연휴를 맞아 선수는 물론 학부모들도 함께해 지역 경제활성화도 큰 보탬이 됐다. 강진군의 설명이다.

오는 8일부터 이틀간은 80개팀 1800여명이 참가하는 제18회 대한민국배구협회장배 전국 생활체육배구대회가 개최된다. 15일에는 정자배 생활체육 수영대회가,

22일에는 전라병영성 제2회 대한민국 무과대전이 치러진다.

또 오는 29일에는 제11회 정자배 마라톤대회도 열린다. 청자축제와 고려정자를 국내외에 알리기 위해 시작된 이 대회는 가을의 정취와 쪽빛 바다가 어우러진 강진만의 경치 좋은 해안길을 따라 매년 열리며 전국에 많은 동호인과 마라토너에게 각광받는 대회로 거듭나고 있다.

같은날 제41회 전남학생종합체육대회 태권도 경기도 열린다. 대회에는 700명의 태권꿈나무들이 참가해 금빛 발차기 대결을 하고, 강진만 춤추는 갈대축제를 기념하는 경기대회도 진행된다. 백련사 주자장에서 석문공원까지 이어지는 코스는 강진만의 가을정취를 만끽하며 힐링의 시간을

선사한다.

특히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나흘간 열리는 제1회 강진만 춤추는 갈대축제는 삶에 지친 도시민이 갈대물결 사이를 거닐며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자연친화형 감성축제로 펼쳐진다.

각종 대회에 참가한 선수입원, 가족들의 가을여행 쉼터로도 손색이 없다. 축제의 주요 행사들은 모든 이들이 함께 참여하고 만끽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11월에도 스포츠 열기는 계속된다. 광주·전남 동호인 테니스 대회, 전국 남녀 우수선수발 태권도 대회, 호남권역 유소년 야구대회, 제10회 김인국수배 시니어 국제배드민턴대회가 예정돼 있다.

특히 김인국수배 국제배드민턴대회는 강진 출신 김인 국수를 기념한 배드민턴의 축제의 장으로 일본, 중국 등 국내외의 시니어 배드민턴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신의 한수를 보여줄 계획이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

강진군은 사계절 훈련하기 좋은 날씨로 스포츠 전지훈련지로 크게 각광 받고 있으며 천연 잔디구장, 인조잔디구장, 실내체육관과 트레이닝 센터까지 갖춰 스포츠메카로 거듭나고 있다.

강진군은 각종 스포츠대회 유치로 선수단과 함께 많은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편의도모를 위해 숙박업소와 음식점 위생 관리 등을 강화하고 있으며, 단순 각종 대회와 전지훈련 추진에 그치지 않고 체육시설 관리와 정보제공, 홍보 등 성공적인 스포츠 메카 정착에 힘쓰고 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스포츠 인프라 구축과 스포츠 메카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노력에 힘입어 강진군은 각종대회와 전지훈련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면서 “차별화한 서비스와 앞선 경쟁력으로 전국 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



전동평(가운데)영암군수가 최근 (주)모헤닉게라지스, (주)한살이노베이션, 구림공업고등학교 등 3개 기업·기관 대표들과 투자 및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영암군 제공>

## 영암군 55억원 규모 투자·업무협약

모헤닉게라지스 등 3개 기업·기관과 체결

영암군은 “최근 군청 남산실에서 (주)모헤닉게라지스, (주)한살이노베이션, 구림공업고등학교 등 3개 기업(기관)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55억원 규모의 투자협약 및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투자협약에 따라 (주)모헤닉 게라지스는 삼호읍 일원에 수제자동차 제조 시설 및 부대시설 건립 등에 38억원(고용창출 70명)을 투자할 계획이다.

(주)모헤닉 게라지스는 특정 중고차를 완전 해체에 세계 유일의 자동차로 재탄생시키는 수제자동차산업의 대표주자로, 관련 부품 업체와 유관 연구업체 등 전·후방 연관산업 유치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주)모헤닉 게라지스는 현재 경기도 파주에 있는 본사를 영암으로 이전하게 되면서 4개의 벤더기업까지 동시에 이전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영암군과 투자 협약을 체결한 (주)한살이노베이션은 무화과, 고구마, 호박, 파, 당근 등 과일과 채소류 건조식품을 생산하는 업체로, 영암식품특화농공단지 입주할 예정이다.

(주)한살이노베이션은 이번 협약에 따라 17억원(고용인원 20명)을 투자해 공장 건립 등에 나서게 된다.

또 (주)모헤닉게라지스, 구림공업고등학교, 영암군 등 산·학·관 3개 기관은 자동차 튜닝산업 및 수제자동차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체결된 업무협약에 따라 (주)모헤닉게라지스는 6개월간의 현장실습과 기술교육을 담당하고 일정 자격을 취득한 교육 수료생에 대해 우선 채용할 계획이다.

/영암=문병성기자 moon@

## 장흥군 레드향 농업특성화 공모사업 선정

장흥군의 새로운 소득 특화작물로 떠오르고 있는 레드향(샤인)이 지역농업 특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9일 장흥군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기후변화에 대비한 미래 대표작목으로 레드향과 블루베리 재배를 추진해 왔다.

지역적응성 실증을 거쳐 보급에 들어간 레드향은 현재 8ha까지 생산단지의 규모를 넓히고 있다.

장흥군은 해풍을 동반한 따뜻한 기후와 비옥한 토양의 영향으로 아열대 작목인 레드향의 수확시기, 품질 등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군은 경쟁력 있는 레드향 단지조성을 위해 농촌진흥청이 주관하는 지역농업 특성화사업 공모에 적극 나섰다.

1차 서면심사, 2차 발표심사를 거쳐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된 장흥군은 2년간 사업비 8억원을 확보하게 됐다.

장흥군은 1단계로 2018년까지 15ha



에 이르는 재배단지를 조성하고, 2단계로 2019년부터 지속적인 규모 확대와 가공식품화 및 관광자원화 등 6차 산업에 집중하기로 했다. /장흥=김용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

### ‘2017 남도답사 1번지 강진 방문의 해’

#### 군단위 최초 정부공식 후원사업 선정

명칭·로고사용 권한 승인



강진군이 추진중인 ‘2017 남도답사 1번지 강진 방문의 해’가 기초자치단체 행사로는 전국 최초로 정부공식 후원 사업으로 선정돼 관련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9일 강진군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29일자로 ‘2017 남도답사 1번지 강진 방문의 해’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 공식후원 명칭 사용과 함께 로고사용 권한을 승인했다.

강진원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장은 “침체에 빠진 국내경기 회복을 위해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 관광 소득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지향점이 같아 공식 후원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강진군은 문체부 공식후원을 얻기 위해 그동안 중앙 관련부처를 수시로 방문해 강진군의 방문의 해 추진 논리를 적극 설명해왔다.

‘2017 남도답사 1번지 강진방문의 해’는 지난 7월26일 전남도, 8월 21일 한국관광공사의 후원 명칭에 이어 이번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공식후원을 확정받아 성공개최에 청신호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

강진 방문의 해 추진기획단 관계자는 “이번 문화체육관광부 후원 결정으로 플래카드, 홍보물 등에 문화체육관광부 명칭과 BI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면서 “2017 남도답사 1번지 강진 방문의 해를 전국적으로 알리고 대한민국 공식행사로 의미를 더욱 확실하게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강진원 강진군수는 “2017 남도답사 1번지 강진 방문의 해는 국내관광을 활성화하고, 우리군 농수축산물 판매를 통한 지역민의 소득창출이 최종 목표”라면서 “관광수용태세 및 환대체계개선, 관광기반구축, 관광객 유치 홍보 등에 최선을 다함과 동시에 불거리와 즐길거리, 먹거리 등을 관광상품화하고 군민의 친절·정결·신리를 바탕으로 내년을 탄탄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강진원(왼쪽) 군수가 단체표장 등록증을 농민대표에게 전달하고 있다. <강진군 제공>

## ‘강진 여주’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

전남 최대 주산지... 전국 대표 특산물 발돋움

강진군은 “지역 특산품으로 재배하는 여주가 특허청 지리적표시 단체표장(등록번호 제44-0000362)에 등록됐다”고 9일 밝혔다.

강진군은 지난해 12월부터 강진여주의 권리보호와 브랜드 육성을 위해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사업을 추진해 왔다.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은 특산물의 명성이나 품질이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따른 것임을 인정하고 그 명칭을 보호하기 위한 상표등록이다.

이번 단체표장 획득은 여주로는 전국 최초이며, 강진 농산물로는 두번째 등록 사례로 향후 강진이 대표적 여주 주산지라는

명성을 확보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진군은 2012년 농업기술센터에서 처음 여주를 도입한 이래 현재까지 40농가, 9ha의 면적에서 여주를 재배하며 전남 최대 주산지로 발돋움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통해 강진여주의 품질향상은 물론 지역적 우수성과 경쟁력을 한층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면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적극 홍보하고 활용해 전국적 특산물로서 명성을 얻고 소득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



중개  
법인

# 한국토지경매

☎ 1522·3396  
대표

**숙박시설**

경매

감정가 38억7천만, 최저가 27억1천만

오룡동 / 3동 7층 / 대지 363평 건물 1200평

**가스충전소**

매매

감정가 12억7천만, 최저가 8억9천만

화순 / 대지 977평 건물 108평 / 자동차가 / 3기 6구

**오피스텔**

매매

매매가 40억

학동 / 8층 / 대지 133평 건물 577평

**상가건물**

매매

매매가 14억5천만

월계동 / 3층 / 대지 198평 건물 450평

**수익형 상가 빌딩**      감정가 21억3천만, 최저가 9억6천만

동구 금남로 / 대지 172평 건물 249평 / 금남로 메인 도로점 / 3층

**토지**      감정가 16억4천만, 최저가 16억4천만

화순 화순읍 / 대지 932평 / 2종일반주거지역, 개발촉진지구 / 광덕지구 서측 / 8m도로점

**고급펜션 및 전원주택 부지**      감정가 10억4천만, 최저가 10억4천만

해남 화원면 / 임야 및 답 6825평 / 보전관리지역, 준보전산지 / 해안도로점 / 해변 전망

**고급레스토랑**      감정가 9억 1천만, 최저가 5억1천만

영암 삼호읍 / 2동 1층 / 대지 3887평 건물 130평 / 삼포교차로 북측

**전통한옥식 전원주택**      감정가 3억6천만, 최저가 2억

보성 / 대지 185평 건물 80평 / 도로점 / 보성강 전망

**상가**      매매가 17억

서구 풍암동 / 대지 400평 건물 100평 / 윤리중학교 인근 / 주차시설 / 현 식당 성업중

**전통한식당 및 웨딩공연장**      매매가 16억

담양 고서면 / 대지 1570평 건물 571평 / 제1종일반주거지역

**전원주택**      매매가 13억

담양 수북면 / 대지 1100평 건물 70평 / 조경 수목 식재

**숙박시설 부지**      매매가 8억5천만

광산구 우산동 / 대지 181평 / 일반상업지역

**임대 수익형 다세대 주택**      매매가 5억5천만

북구 안암동 / 대지 110평 건물 125평 / 3층 건물 / 22평형 6기구 / 공실없음

부동산 매도 / 매수 상담환영

토지 / 상가 / 공장 / 창고 / 임야      010 - 6772 - 1114 김 주 성